믿음을 다지기 위한
교리문답
(The Study Catechism)

질문 1. 당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사는 것과, 성령의 사귐 안에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후13:13).

질문 2. 당신은 어떻게_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시고 나를 사신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주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그의 놀라운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그의 돌보심에 전적으로 맡깁니다(고전 6:19-20; 갈 2:20; 시 136:1).

질문 3.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끊임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은혜가 놀라워,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못지않게, 내 주변의 사람들, 더더욱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마음에 둡니다(요일 4:19; 고후 5:15; 롬 12:15-16).

질문 4. 당신은 어떻게 성령의 사귐 안에서 삶을 살겠습니까?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아, 믿음으로 그를 고백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나는 은혜와 지식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하여 의도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를 받습니다(고전 12:27; 갈3:27; 고전 6:17,19; 벧후 3:18;엡 2:10).

1. 사도신경

질문 5.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 안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속에 그 요약이 들어 있으며,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주요 내용을 확실히 말해 줍니다(요 20:31).

질문 6. 사도신경의 첫 조항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질문 7.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애가 3:22; 아가 8:7; 요일 4:8).

질문 8.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의 생활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하신 일에서, 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압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으시려는 사랑이며, 동시에 너무도 강하여 아무 것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요 3:16; 히1:3; 요일 4:9; 마 9: 36; 시 106:8).

질문 9. 이 진리에서 당신이 받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있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므로, 나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과, 사나 죽으나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시 12:6; 롬 8:38-39).

질문 10. 당신은 이 고백을 개인적으로만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사랑하는 능력과 강력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순교자들과 더불어 고백하며, 또한 지난 여러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 지상에서 지금 그를 섬기려고 힘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고백합니다(히 12:1;롬 1:12).

질문 11. 사도신경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은 남성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신체를 가진 피조물만이 남성이거나 여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디 영이시기 때문에 신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성의 특성들을 초월하신 산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사용하는데, 남성 형상이 있는가 하면 여성 형상도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여인이 그녀의 젖먹이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이사야 49:15). "어머니가 그녀의 아기를 위로하듯이,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이사야 66:13; 이사야 49:15; 마 23:37).

질문 12. 그러면 사도신경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신약성경에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아들과 딸로 입양되어,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 즐기시는 그 관계를 우리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롬 1:7; 요 14:9-10, 17:24; 요 1:12; 갈 4:6).

질문 13. 당신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고백할 때, 당신은 남자를 여자보다 높이보고, 남성 지배를 시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권세와 권위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반영할 때 비로소 믿을 만하고, 남을 마구 지배하는 형태의 것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당신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가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마 23:11). 하나님 아버지께서 표준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으로써 우리가 모든 권세 남용을 폭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에게는 하늘에 계시는 그 한 분 아버지가 계실 뿐이니, 땅에서 아무도 당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오"(마23:9)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교회의 모든 사역에 부르십니다(갈 3:28; 엡 5:21).

질문 14. 하나님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면, 세상에 그렇게도 악(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아무도 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모든 합리적 설명을 초월하는 끔찍한 심연(深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궁극적 기원은 모호합니다. 그것의 극악성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실 것이 확실하다고 담대히 언명(言明)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심으로써, 세상에 새 희망을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즉 고통은 끝장이 난다는 것, 더 이상 죽음이 없으리라는 것, 그리고 만물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시 23:4; 벧전 1:3; 벧후 3:13; 롬 8:21; 욥 19:25).

질문 15. 당신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할 때,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그것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무(無)에서부터 불러내어 존재케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그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완전한 지혜로써, 만물을 유지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계 4:11; 창 1:1; 히 11;3).

질문 16.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사랑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또한 세상과 더불어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역량인 이성, 상상력, 의지 등은 우선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동반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큼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반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 1:26-27).

질문 17.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실재를 반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관계성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것은 거룩한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신비 속에, 세 개의 신적인 위격(位格)들, 곧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완전한 사랑과 자유 속에서, 서로 안에, 서로와 더불어, 서로를 위하여 영원히 사십니다(눅 3:21-22;요 1:18; 요 5:19; 요 17:21-22).

질문 18.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고백할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반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심(全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를 모든 좋은 것의 원천으로 받들어 모실 때, 우리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에게 비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광채를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인간에게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시 9:1; 요일 4:7; 요일 4:11; 마 5:14-16).

질문 19.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지구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의 사랑의 돌보심을 반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도 지구를 돌보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지구가 주는 선물들이 공정하고 지혜롭게 사용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오용(誤用)함으로써 어떤 피조물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장래의 세대들이 지구의 풍요와 좋은 것을 계속 즐기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시 24:1;시

89:11; 창 2:15; 사 24:5; 롬 12:2).

질문 20. 우리가 죄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는데, 그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까?

"예"라고 할 수 있고, "아니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들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가 비뚤어지고 혼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 또는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정지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일은 정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간 고유의 역량들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능력,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결이 파손되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자신에게로 굽은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에는 무력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죄의 울타리 안에서 억압된 자유만을 누리고 있습니다(요 8:34; 롬 3:23; 롬 3:10; 롬 1:21; 사 59:1-3).

질문 2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돌아서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때가 찼을 때, 우리의 부서진 인간성을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는 그렇게도 완전히 남을 위한 삶을 사심으로써, 그의 됨됨을 드러내셨습니다. 곧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그와 일치한 자가 될 때, 우리의 인간성은, 우리가 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됩니다(사 65:2;빌 2:8; 골 1:15; 롬 8:29).

질문 22.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보전하실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것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혜와 자애로운 돌보심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하나하나를 관심에 둡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 살아 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주십니다"(시 145:15-16). 특히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선을 이루어내심으로써, 세상을 부양(扶養)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데, 그 길을 막는 어떤 악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컨대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한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창 50:20; 롬 8:28; 시 103:19; 시 145:17).

질문 23.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써 받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삶의 하루하루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실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낙심하고 있을 때나 슬퍼할 때 위로하시며,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마침내 나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탁하면서, 역경 중에 인내하는 은혜를, 축복 가운데서 감사하는 은혜를, 불의와 싸울 용기를 가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惡)도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손해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은혜를 받습니다(시 146:9; 사 58:11; 사 41:10; 고후 1:3-5; 시30:5).

질문 24. 당신이 괴로움과 절망과 싸울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당신의 신앙이 당신에게 어떤 보탬이 됩니까?

내가 상해(傷害)를 입거나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나의 신앙은 나를 붙들어 괴로움과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그 신앙은, 나의 희망이 사라질 때, 나의 마음 아픔과 고통도, 당장은 내가 분간할 수 없지만, 보다 큰 목적과 더 높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섭리 안에 포함되었으리라는 것을 나에게 깨우쳐 줍니다. 나는 슬픔과 부끄러움과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과, 나에게 치유와 위로를 가져다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시 42:11;고후 4:8-10; 시13:1-2; 욥 7:11).

질문 25.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을 필요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하시고 무한히 부요하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모든 피조물이 존속(存續)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피조물들이 생겨나지 못했을 뿐더러, 존속하지도 못할 것이고, 성취(成就)를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존(自存)하시는 분이시고 자족(自足)하시는 분이십니다(행 17:24-25; 요 1:16; 5:16; 엡 1:22).

질문 26.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의 은혜의 행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은 단지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존재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과 자유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가지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시 19:1; 고후 3:17; 시 67:6-7; 엡 1:3-4; 용 3:36).

질문 27.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 당신의 고백이 현대 과학의 여러 가지 발견들과 서로 어긋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 나의 고백은, 누가, 어떻게, 왜 세상을 창조했는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을 줍니다. 그 고백은 (a) 자족(自足)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b)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 능력으로, 무에서부터 세상을 불러내어 생겨나게 하셨다는 것, (c) 그것은 사랑과 자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말해 줍니다. 자연과학은 자연의 특정 구조와 과정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은, 여러 가지 신비에 속하는 궁극적 실재에 관한 이 질문들에 대하여 해답을 줄 입장에 있 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은 그런 문제들을 탐색할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과 현대과학의 발견들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동시에 현대과학의 어떤 요소도 기독교 신앙과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요 1:1-3).

질문 28. 사도신경의 둘째 조항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질문 29.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로 믿고 고백할 때,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눅 3:21-22; 눅 12:49-50; 요 1:14).

질문 30.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어느 누구도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어는 누구도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이 그런 분이시고, 그 분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고, 그가 그 일을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사 53:5; 여 1:29; 골 1:15-20; 롬 15:7; 눅 6:37; 마 5:44; 엡 4:25).

질문 31.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믿고 고백할 때, 당신이 확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특히 믿음으로 그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연민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을 내가 확신하며, 또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분을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경할 것을 다짐합니다(고전 15:3-4; 계11:15; 엡 1:20-23; 빌 2:9-11).

질문 32.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당신이 말 할 때, 당신이 확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가 여자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가 진정 사람이셨다는 것, 둘째로, 우리 주님의 성육신은, 하나의 거룩하고도 신비로운 사건으로서,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들도 다 초월하여, 오직 자유롭고도 신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 셋째로 예수의 생애 맨 처음부터, 그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의 유일한 기원(起源)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존재였다는 것을 나는 확언합니다(눅 1:31; 눅 1:35; 히 2:14; 빌 2:5-7).

질문 33. 우리는 예수를 참으로 하나님이시라고 확언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다 충족 시킵니다. 그는 우리 예배의 마땅한 대상이시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요 20:28; 마 11:27; 요일 4:14).

질문 34. 우리는 예수를 또한 참으로 사람이셨다고 확언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는 참으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상황 속에 완전히 들어오셨고, 내적으로 그것을 극복하셨습니다. 그가 순수하게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셨으며 그 연합은 결코 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난폭한 죽음도 받아들일 정도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고, 바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예수의 그러한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영접할 때, 그는 우리의 불순종을 제거해 주시고, 그의 완전한 의를 가지고 우리를 옷 입혀 주십니다(히 2:17-18; 4:15; 5:8-9; 롬 5:19).

질문 35. 어떻게 예수가 동시에 참으로 하나님도 되시고 또한 참으로 사람도 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神-人)) 연합의 신비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확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신적 능력과 신분과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할 때, 그것은 그의 인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인간적 유약(柔弱)성과, 궁색함과, 가사성(可死性)을 지니신 분으로 묘사할 때, 그것은 그의 신성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그런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실 자유가 있고, 그리하여 이러한 놀랍고도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실 자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막 1:27; 4:41; 마 28:18; 눅 22:44; 욥 5:9).

질문 36. 하나님께서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빛과 구원이 되실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과, 그들을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주 하나님을 배반했을 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활동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임금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고, 제사장들은 백성의 속죄의 제사를 위한 것이고, 임금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궁색(窮塞)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며, 백성을 보호하여 그들의 원수들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의롭게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 17:3-4; 12:1-4; 출 6:4-5; 갈 3:14; 렘 30:22; 벧전 2:9-10;슥 1:6; 레 5:6; 시 72:1,4).

질문 37.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가 오심으로써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이 확대되고 확인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속으로 영접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만백성에게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롬 11:29).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손을 뻗으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김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사 61:8; 렘 31:3; 삼하 23:5; 롬 11:29).

질문 38.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왜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예수에게 붙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임금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를 대망하였고, 마침내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예수는 이런 직분들을 맡음으로써, 그것들을 변화시키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고후 1:20; 행 10:37-38; 눅 4:17-19).

질문 39.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자 직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는 죽어가는 죄악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포하신 사랑을 몸소 실행하셨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아무리 자주 "아니요"라고 말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예"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하여 그가 영원히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행 3:20, 22; 요 1:18; 엡 3:17).

질문 40.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직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는 세상 죄를 치워버리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고, 그 자신를, 곧 그의 존재와 사역 전체를, 바쳐서 중재하셨습니다(히 4:14; 요 1:29; 히 2:17; 엡 1:7).

질문 41.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의 직분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는 종의 형상을 취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는 연약함 속에서 왕적인 능력을 완전히 행사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통치하심으로 죄와 악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의의 검으로 하신 것이고, 세상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요 19:19; 빌 2:5-8; 고전 1:25; 요 12:32).

질문 42. 당신은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는데, 그때 당신이 확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주께서, 그 시대의 한시(限時)적인 종교적 또는 정치적 권위들에게 홀대와 배척과 희롱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압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는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창피한 대우를 받는 모든 인간들과, 자신을 일치시키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자신을 내어주셔서, 세상 재판관에게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자신은, 죄가 있으면서도, 그를 통하여, 하늘 재판관 앞에서 무죄선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눅 18:32; 사 53:3; 시 9:9; 눅 1:52; 고후 5:21; 딤후 4:8).

질문 43. 당신은 "예수가 십자가 형(刑)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고 고백하는데, 그 때 당신이 확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께서 인간의 죽음의 관문을 실제로 통과하셨을 때,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즉 그가 모르시는 슬픔이란 전혀 없다는 것, 그가 담당하시지 않은 비통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값도 마다하지 않고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마 26:38-39; 사 53:5; 갈 3:13; 히 2:9; 고후 5:19).

질문 44. 당신은 예수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고백하는데 , 그 때 당신이 확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결과들을 전부 스스로 걸머지셨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고뇌까지도 걸머지셨다는 것입니다 (막 15:34; 히 9:26; 롬 4:24-25).

질문 45.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은혜는 더 풍성하고 죄는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잔혹하게 대하는 것과,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십니다. 그래도 결코 은혜 없이 심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짐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시고, 단 한 번에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온갖 처참함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을 겪음으로써, 죄를 삼켜버린 심연(深淵)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롬 8:1, 3-4; 고전 1:18; 롬 5:8; 골 1:20; 약 2:13).

질문 46. 당신은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는데, 그때 당신이 확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죽음의 세력에게 붙들려 있을 수 없는 것을 내가 확언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을 이기시고, 새롭고 존귀한 생명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시면서, 십자가 형으로 죽으셨던 자신을 주와 세상의 구주로 나타내셨습니다(행 2:24; 고전 15:3-4; 눅 24:36-40; 요 20:15-18; 고전 15:5-8; 요 20:27).

질문 47. 당신은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고 고백하는데, 그 때 당신이 확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려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는 단절되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까마득한 과거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이를 수 없는 장소에, 격리되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써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광중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중재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다스리십니다(행 1:6-11; 골 3:1).

질문 48. 당신은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느 누구와도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두려워 떨면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심판에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모든 죄악된 실패가, 마치 불로 소멸되듯이, 없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행한 선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고후 5:10;전 12:14; 행 17:31; 롬 8:38-39; 요일 4:17; 고전 3:12-15; 행 10:42).

질문 49.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한도는, 그들이 누구이든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세 가지 진리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무도 그를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관도 우리 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히 10:31; 롬 11:32; 마 18:12-14; 엡 2:8; 딤전 2:3-4; 요 3:17; 겔 18:32; 고후 5:14-15).

질문 50. 기독교가 유일한 참 종교입니까?

종교는 복합적인 것입니다. 종교가 자기정당화나 전쟁도발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일종의 죄입니다. 모든 종교는 너무도 자주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적지 않게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불복종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제시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여러 가지 진리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확언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마 7:3; 약 1:26; 약 1:27; 행 4:12; 요 14:6; 롬 1:16; 고후 4:7).

질문 51.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 신봉자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형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고, 다른 전통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는 방도 외에, 어떤 다른 방도로 사람을 취급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계 7:9; 시 103:8; 요 3:19; 딛 2:11).

질문 52. 내가 비기독교인들과 타종교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한, 우호(友好)를 우호로, 적의를 친절로, 관용을 감사로, 박해를 인내로, 진리를 찬동으로, 그릇된 것을 진리로 대해야 합니다. 나는 형편이 요구하는 대로, 침묵으로나 혹은 공공연히, 담대하게 혹은 유순하게, 말로나 행위로, 겸손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나의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진리를 타협하는 일을 피하는 한편, 편협한 마음을 가지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께서 나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신 그 환영과 영접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식으로 비종교인과 타종교인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영접해야 합니다(롬 15:7; 눅 6:37; 마 5:44; 엡 4:25; 행 13:47; 롬 12:21;롬 13:10).

질문 53. 사도신경의 셋째 조항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질문 54. 당신이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우리 주를 사랑하거나, 알거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인격적인 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그리스도께 연결하시는 스승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위로자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 분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지식과 섬김은 모두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요 14:26; 고전 12:3; 롬 5:5; 고전 6:17,19; 고전 3:16; 요 4:24).

질문 55.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를 받습니다. 성령은 새 창조의 산파로서 **말씀**과 함께 임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은 **말씀**의 순수한 영적 젖으로써 우리를 양육하시며, 교정하시며 강건케 하십니다 (벧전 2:2; 엡 6:17; 요 14:16-17; 요 3:5-6; 누구 11:13; 살전 1:5; 요 16:8; 롬 8:15-16; 벧전 2:2).

질문 56.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때 당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대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하고, 사나 죽으나 의지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바르멘 선언 제 1 항; 요 1:1-5; 요 1:14).

질문 57. 성경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과 기능과 기원으로 보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으로 더 깊이 사랑하고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궁극적 기원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열정적인 욕망을 가지도록 우리를 감화하시는 분이십니다 (딤후 3:16; 요 5:39).

질문 58.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교와 또 다른 모양의 기독교 증언들도, 그것들이 성경의 증언에 충실할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그것이 선포하는 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적 임재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은 성실한 선포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막 16:15; 고후 4:5; 롬 1:15-16; 10:17).

질문 59. 성령이, 기록된 형식과 선포된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선포는 성경에 의거해야 합니다. **말씀**은 성령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기에, 참된 해석은 기도에 의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그것이 원하는 곳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은 예기치 않은 양상들로 혹은 간접적 양상들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하며, 결코 **말씀**과 상치되거나 혹은 **말씀**을 희석(稀釋)하지는 않습니다 (요 3:8; 행 8:29-31; 엡 6:18; 벧전 1:20-21; 사 45 丨 4; 민 22:28).

질문 60. 때로는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보다 더 슬기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예지(叡智)가 어디서 오느냐에 있지 않고, 그것을 검증할 규범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이 가장 애착하는 견해들을 지지하든지 그것들과 상치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성실한 분별은, 결국 성경 안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되어야 하고 또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딛 1:9).

질문 61. 현대의 비평적 학문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형태라는 당신의 신념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현대 학문의 방법들은 하나의 좋은 하인(下人)입니다, 그러나 나쁜 상전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되고, 거부해서도 안됩니다. 그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그리고 풍부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것들이 신앙의 자리를 빼앗아가질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의 다른 신앙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해석자들은 이 방법들을 성실한 증언과 이해를 섬기도록 사용합니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모든 본질적인 사안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남아 있는 동안, 현대 학문의 방법들은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 남아 있습니다 (잠 1:5-6; 잠 10:14; 고전 1:20,25).

질문 62. 당신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데, 그 때 당신이 확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자기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모든 신실한 백성의 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자신을 교회에게 주셨고 또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과 분리될 수 없는 이상,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하고, 중요성에 있어서 그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 점에 있어서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지금 그냥 불완전한 것으로 남아 있을지라도, 교회는 보다 더 거룩하고, 보다 더 보편적인 것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니 말입니다 (갈 2:20; 고전 1:2; 레 11:44; 벧전 1:15-16; 계 5:9).

질문 63.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세상을 향한 그의 사랑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행 1:8; 요 15;26-27; 엡 3:8-10).

질문 64. 이 사명은 어떤 형태들을 취합니까?

그 형태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만큼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 때, 교회는 그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결국 궁핍한 자들의 요구가 충당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자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눅 10:37; 엡 4:32; 신 15:11; 행 4:34).

질문 65. 궁핍한 사람들이란 누구입니까?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빵이 필요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압박당하는 자들에게는 정의가 필요하며, 외로운 자들에게는 동무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 또 하나의 그리고 보다 더 깊은 측면에서 볼 때 -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하고, 죄인들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 측면에서는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다 하나같이 궁핍합니다.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시들지 않는 사랑을 선포함으로써, 절망적인 세상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거지가 또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 10:12; 마 25:37-40; 렘 9:23; 고전 9:16; 엡 6:19).

질문 66. 단신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란 말을 하는데, 그 때 당신이 확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땅에 있든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든지, 모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지체들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의 우리의 분리를 제거하신 것처럼, 그의 영으로써, 우리를 서로 갈라놓는 모든 것을 제거하십니다. 그는 적대적인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다수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묶는 그 결속은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공고(鞏固)합니다 (엡 2:19-20; 롬 12:5; 엡 2:14; 고전 12:27; 갈 3:28; 엡 4:4; 고전 12:4-7, 12-13).

질문 67.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되고 또 따라서 서로가 교통하게 됩니까?

성령이 **말씀**과 성예전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예전을 우리가 "은혜의 방편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의 두 예전, 곧 세례와 주의 만찬을 인정합니다 (고전 10:17; 고전 12:13; 골 3:16).

질문 68. 성례전이 무엇입니까?

성례전은 기독교 예배 중의 하나의 특별한 행동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표상(表象)을 사용하여, 죄의 용서와 영생을 위한 복음의 약속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례전의 표상은 신자들에게 은혜로써 이 약속을 확인시키며, 약속된 것들을 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세례식에 있어서는 물이 그 표상이고, 주의 만찬식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그 표상입니다 (막 1:9-11; 막 14:22-25).

질문 69. 당신은, 약속의 말씀과 성례전의 표상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약속의 말씀을 치워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물은 단지 물에 불과하고, 그 빵과 포도주는, 빵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에 다 물을 더하고 또는 빵과 포도주를 더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 됩니다. 성례전을 이런 형식으로 행할 때, 그 예전은, 말씀이 언제나 은혜로써 하는 바를 합니다. 곧 그것은 말씀이 약속하는 구원을 가져오며, 믿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現存)을 가져다줍니다. 성례전은,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유일하게 확언하고 다짐해주는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눅 24:30-31; 고전 10:16; 마 28:20; 골 1:27).

질문 70. 세례와 주의 만찬식의 주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한 번만 받는데, 주님의 만찬은 반복해서 받습니다. 세례는 반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단 번에 그리고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단 번에 그리고 완전히 그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만찬은 반복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충족치 않은 상태로 그에게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시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굳게 해주십니다 (행 2:41; 요 6:33; 요 6:51; 요 6:56; 고전 11:26).

질문 71.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표이며 봉인(封印)입니다 (롬 6:3-4; 갈 3:27; 롬 4:11).

질문 72.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세례는 내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 속으로 들어가며, 믿음으로 그를 영접한 모든 사람과 같이 있게 됩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는 나를 그의 영으로 세례를 주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버리시며, 그것들의 지배에서 나를 해방시킵니다. 나의 세례는, 장차 내가 그와 함께 영광중에 살아나게 될 것과, 지금도 새로워진 삶 속에서 그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징표입니다 (골 2:12; 막 1:8; 고전 6:11; 엡 4:4-6).

질문 73. 어린 아기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는 부모와 함께 복음의 위대한 소망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에 속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의 그 언약을 통하여, 그들에게 용서도 믿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이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 공동체 속에 영접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하며, 적당한 때에 그들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믿음을 다짐해야 합니다 (창 17:7; 행 2;38-39; 행 16:15; 행 16:33. 18:8).

질문 74. 어린 아기들의 부모나 보호자들이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어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아기의 부모 중에 하나나 혹은 보호자가 기독교인이어서, 그 아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할 것을 약속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를 훈육하기로 약속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책임한 일일 것입니다 (엡 6:4; 딤후 1:5; 고전 7:14).

질문 75. 당신은 무슨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뒤에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만 백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선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마 28:19) (마 28:16-20; 마 3:16-17; 벧전 1:2; 고전 12:4-6).

질문 76.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세 분의 신(神)이 아니라, 세 위를 가지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지니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후 13:13; 요 1:1-4; 롬 8:11; 요 16:13-15).

질문 77.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귐을 새롭게 하는 표징이며 봉인입니다 (고전 10:16).

질문 78.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거기에 계시며,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떼는 빵과 우리가 축복하는 그 잔이 우리 주님 자신의 몸과 피에 동참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그가 일찍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은 그것들을 통하여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까지 죽으신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

빵과 잔을 받을 때,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내 마음 속으로 그를 먹는 것이며, 그의 부활의 생명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그의 생명은 내 것이 되고, 내 생명은 그의 것이 됩니다 (고전 11:23-26; 막 14:22-25).

질문 79.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례 받은 모든 크리스천, 곧 그런 위대한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믿음으로 접근하는 자들은 주님의 만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례받은 어린이들도 포함됩니다. 곧 성찬식에 동참할 의지를 표시한 어린이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성례전에 의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어린이들이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눅 13:29; 고전 11:28; 빌 4:4).

질문 80. 당신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죄를 용서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이며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것은 나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를 영접하는 동시에, 나를 온전케 하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은 나의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은혜만이, 그리고 믿음만이, 내가 복음을 통하여 받는 사죄를 이룹니다 (고전 1:30; 딤전 1:1; 롬 11:6; 엡 2:8; 롬 5:15; 롬 4;16; 롬 3;28).

질문 81. 사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너그럽게 보아 넘긴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그가 용서하시는 바를 그냥 보아 넘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써, 당신이 싫어하시는 것를 심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의 적이 되는 것들을, 바로 그 근본에서 부터 제거하심으로써,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과정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으로부터 선이 생겨나고, 절망에서 희망이, 죽음에서 생명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려두시고, 원수들을 변화시키셔서 친구들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의 수난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타협 없는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합 1:13; 사 59:15; 히 9:22; 롬 5:8-10; 대상 16:33).

질문 82. 당신에게 해를 입힌 자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복음은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놀랍고 좋은 소식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죄는 무조건적입니다. 따라서 내가 죄를 고백하기 전에, 그리고 회개하기 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나에게 해를 입힌 자들에 대한 나의 용서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노여움이나,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저지른 상해를 그냥 보아 넘기거나, 그 죄의 악함을 그냥 눈감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골 3:13; 막 11:25; 골 2:13; 마 18:21-22; 히 12:14).

질문 83. 당신에게 정말로 상해를 입힌 자들을, 당신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이는, 내가 나의 원수들을 사랑할 수 없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고, 나에게 정말로 상해를 입힌 자들을 용서할 마음조차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눅 6:27-28; 약 1:17; 롬 8:29; 빌 4:13).

질문 84. 당신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부활하여, 각각 고유하고 특이한 정체성을 가진 산 인격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축하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살아계신 구주는, 그의 빈 무덤이 발견된 뒤에, 인격체로 말씀도 하셨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몸의 부활은 전인적인 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은, 영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의 연합체로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14:19; 요 11:25; 롬 6:5; 고전 15:21; 고전 15:43; 골 1:18).

질문 85. 부활의 소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은 이 세상을 벗어난다는 소망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온갖 형태의 악이 아주 근절되리라는 소망이며, 과거의 역사가 구속도리라는 소망이며, 과거에 있던 만물이 새롭게 되리라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새 창조의 소망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소망으로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고, 인간은 참으로 사랑하고, 평화와 정의가 땅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사 11:6; 계 21:1; 사 65:17; 벧후 3:13; 고후 5:17).

질문 86. 부활의 소망이란, 이 세상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그 위대한 소망이 참으로 살아 있을 때, 현세의 고통들을 해소하려는 모든 작은 소망들이 현재에도 생겨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서로 간의 화해, 자신과의 화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주신 위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온 세상의 궁핍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동시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적의(敵意)와 정의롭지 못함과 고난이 여기서 그리고 지금 극복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의 종말의 도래를 기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생명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의 의미입니다 (시 27:13; 시 33:20-22;롬 14:19; 신 30:19; 눅 1:78-79).

질문 87. 당신이 "영생"을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같은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의 영원한 언약이 맺어졌고, 구현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그에게 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새 생명에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영원무궁 살게 됩니다 (요 3:16; 요 6:54; 요 17:3; 롬 6:22; 롬 6:23; 요일 2:25; 마 25:34).

질문 88. 하늘은 지루한 곳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늘은 우리의 참된 집이고, 사랑의 세상입니다. 거기서는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마음속에 부어질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의 결속으로 하나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거기서는 마침내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는 우리의 가장 깊고 진실 된 기쁨도, 하늘에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들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당신 어전에는 기쁨의 충만함이 있고, 당신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쾌락들이 있습니다" (시 16:11; 요 14:2-3; 마 6:20; 마 8:11; 골 1:5; 고전 13:12).

II. 십 계 명

질문 89.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을 제시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 상호간에, 올바로 사는 방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신 10:4; 마 19:17).

질문 90.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출하신 후에,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살면서, 만방에 빛의 역할을 하도록 선택된 백성 곧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한 자유헌장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알고 섬기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헌장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출 20:2; 신 11:1; 눅 1:74-75).

질문 91. 당신이 이 법에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내려고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구원을 벌어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벌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벌 받는 것을 피하려고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나를 축복하셨고, 나의 안녕을 위하여 그것을 주셨기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시 118:1; 골 3:17).

질문 92. 하나님의 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의 용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하게 실패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며, 나를 몰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게 합니다. 둘째, 율법은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며, 그렇게 하도록 나를 독려합니다 (롬 3:20; 롬 7:7; 잠 6:23).

질문 93.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출 20:3; 신 5:7; 신 26:17; 마 4:10).

질문 94. 이 계명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충성을 능가하는 충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모든 선을 기대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 6:24; 신 6:5; 잠 9:10; 마 10:37).

질문 95.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출 20:4; 신 5:8).

질문 96. 이 계명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인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하나님 외의 어떤 것을 하나님인 양 대우하면, 내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내가 나 자신의 관심사들을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길 때, 나는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며, 결국 내 자신의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신 6:14; 요일 5:21; 출 34:14; 대상 16:26; 롬 1:22-23; 빌 2:4).

질문 97. 셋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지 말라"입니다 (출 20:7; 신 5:11).

질문 98. 이 계명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웁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저주하는 말로나 혹은 경건한 상투어로 사용하는 등 조심 없이 사용하면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시 29:2; 계 15:3-4; 시 138:2; 엡 4:29; 시 103:1-2).

질문 99.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입니다 (출 20:8; 신 5:12).

질문 100. 당신은 이 계명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날 하루를 떼어 놓아,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감사와 찬미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내 마음과 입술에 두고, 나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롬 10:8; 신 5:12; 창 2:3; 레 23:3; 행 2:42, 46).

질문 101. 어째서 한 주간의 하루를 안식의 날로 떼어 놓아야 합니까?

첫째,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고용주들에게 이용만 당해서는 안됩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일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의 직업이 나의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규칙적 성경 공부와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나 혼자서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일이고, 더더욱 나 자신의 가족 식구들과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신 5:14; 출 31:17).

질문 102.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주간 첫날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간 첫날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채우기 시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막 16:2; 행 4:33).

질문 103. 처음 네 계명을 가장 훌륭하게 요약한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는 첫째이며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그것들을 요약하셨습니다. 즉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마 22:37; 신 6:5).

질문 104. 다섯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 20:12; 신 5:16).

질문 105. 당신은 이 계명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만을 공경해야 하지만, 나의 양친 곧 내 어머니와 아버지도 순수한 마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더러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들에게서 받는 혜택을 감사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특히 그들의 노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엡 5:21; 롬 12:10; 엡 6:2; 잠 1:8; 레 19:32; 눅 2:51).

질문 106. 당신이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 의무에 있어서 제한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미천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사건건 그것이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과 복종인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복종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나 정신을 차려서, 내가 자신을 속이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의 진리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벧전 2:17; 행 5:29).

질문 107. 여섯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출 20:13; 신 5:17).

질문 108. 당신은 이 계명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의 이웃을 불공정하게 해롭게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금하십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은, 직접적인 폭행으로 뿐 아니라, 성난 말이나 교묘한 계획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의해서 뿐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구조들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원수까지도 포함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격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요일 3:15; 잠 24:17; 롬 12:19-20; 골 3:12-13; 마 5;21-22; 마 5:21-22; 마 26:52).

질문 109. 일곱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출 20:14; 신 5: 18).

질문 110. 당신은 이 계명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적 관계에 있어서 정절하고 순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타락시키지 않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또는 그것을, 순간적인 욕망이나 나 자신의 쾌락을 이기적으로 만족시키는 일과 혼동하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한 상태에 있든지 독신 상태에 있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성적인 불륜을 금지하십니다 (엡 5:3; 마 5:27-29; 히 13:4; 살전 4:3-4).

질문 111. 여덟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출 20:15; 신 5:19).

질문 112. 당신은 이 계명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모든 도둑질과 강도질을 금하십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하는 구조나 술수나 조직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욕심에 끌리지 말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로 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 20:19-20; 렘 22:13; 잠 18:9; 딤전 6:9-10; 요일 3:17; 눅 12:15; 빌 4:19).

질문 113. 아홉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입니다 (출 20:16; 신 5:20).

질문 114. 당신은 이 계명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의 이웃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하는 일을 금하십니다. 나는 금전이나 정실(情實)이나 우정 때문에, 혹은 복수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을 말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을 말할 것, 할 수 있는 한 내 이웃에 관해서 좋게 말할 것, 그럴 수 없다면, 내 이웃의 결점들을 관용하는 마음으로 보아주라는 것입니다 (슥 8:16-17; 벧전 3:16; 잠 14:5; 약 4:11; 벧전 4:8).

질문 115. 이 계명은 민족차별과 다른 형태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금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금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더러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상처입기 쉬운, 나와는 다른, 혹은 냉대를 받는 사회 그룹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여자, 동성애자, 민족적 또는 인종적 소수파, 그리고 국가적 원수들이 사회적 편견의 비난 대상이 되어,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 속합니다. 천대와 학대와 폭력은 살인을 금하는 계명에 의하여 금지된 것들인 바, 부정적 고정관념은 바로 그런 행동을 초래하는 거짓의 한 형태입니다 (롬 3;13, 15; 잠 31:8-9; 마 7:1-2).

질문 116. 열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출 20:17; 신 5:21).

질문 117. 당신은 이 계명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나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해야 하고, 금전이나 세상의 것들에게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탐낸다"는 말은 어떤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 이웃의 행운이나 성공을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질투를 허용하여, 내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됩니다 (히 13:5; 갈 5:26).

질문 118. 마지막 여섯 계명을 가장 잘 요약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들은 나에게, 이웃과의 삶을 어떻게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는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써 그것들을 요약하셨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한 그 최대의 계명과 대등한 것입니다 (마 22:39; 레 19:18).

질문 119. 당신은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며 또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죄인입니다. 나는 변명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계명들을 지키는 데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모든 법을 지키면서도, 한 점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약 2:10). 내가 나 자신의 실패에 걸맞도록 율법을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질은 나의 실패들을 감소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아직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내 속에 있는 죄보다 더 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과 나는 나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루하루 사랑과 지식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 14:3; 엡 2:8; 시 130:3-4; 골 1:13-14;요일 1:8).

III. 주님의 기도

질문 120.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게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써 존경과 확신과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기도는 찬미와 고백과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사뢰는 일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영광 앞에서 놀라움과 사랑과 찬양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골고다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善)을 인정하며, 나에게 모든 것을 놀랍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우리는 곤궁하고 슬픈 삶의 갈피갈피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확인하며, 다시 그렇게 해 주시시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 48:1; 시 96:8-9; 약 5:16; 요일 1:9; 시 107:8; 시 75:1; 시 50:15; 시 145:18; 엡 6:18).

질문 121.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대화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에 뿌리박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은혜와 순결과 위엄과 사랑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느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성실하게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에서 해방하시며, 봉사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해 주십니다 (시 62:8; 시 139:1; 빌 4:6; 마 7:7-8).

질문 122.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마음에 담으시고, 신적 지혜로써 그것들을 다루어 보시며, 완전하신 뜻을 가지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십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상심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특히 순간적 복을 요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보다 큰 목적에 합당한 방도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야말로 궁극적인 응답입니다(요일 5:14; 약 1:17; 마 6:33).

질문 123. 우리로 하여금 매일 기도하도록 권장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권장하시며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위로부터 우리를 대응하시는 그 보다 큰 사랑에 사랑을 가지고 응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허락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고 생명을 주는 참된 모든 것을 은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 65:24; 눅 11:12-13; 빌 4:8; 엡 3:20-21).

질문 124.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표준과 전형의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표준과 전형은 주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으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대하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질문 125. 주님의 기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맨 앞에 시작하는 말씀이 있고, 송영 혹은 찬미의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각 부분이 세 개의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며, 둘째 부분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고, 둘째 부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합니다. 첫 부분의 간구들은 다음 세상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부분에 있은 간구들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과 더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질문 126.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린이 같은 존경심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놓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는 그가 "하늘"에 존재하시고 거주하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피조물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가실 수 있지만, 그는 피조 질서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신적인 권위의 좌소로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영광 중에 다스리시고,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십니다. 우리의 그 첫 마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상하신 돌보심 안에서 안전하게 안식을 누린다는 확신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바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확신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롬 8:15; 렘 23:23-24; 행 17:24-25).

질문 127.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첫 간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간구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그것이 모든 기도의 목표와 목적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됨됨이와 그의 태도와 그의 사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실대로 알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기를 구하는 것이며, 만물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진정으로 섬기도록 정돈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렘 9:23-24; 롬 11:36; 시 115:1).

질문 128.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둘째 간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과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을 통해서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다스리실 것과, 우리의 개인관계 속에서는 사랑을 통하여 다스리실 것과, 우리의 기구적 사건들에서는 정의로 다스리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뿐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특히 복음이 방해받는 일이 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옳게 선포되고, 수용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특히 환난 중에도, 보존되고 증진하기를 간구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 점점 더 굴복하여, 통곡하는 일이나 고통당하는 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평화 속에서 살게 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시 68:1-2; 살후 3:1; 계 22:20; 롬 8:22-24; 고전 15:20, 28).

질문 129.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셋째 간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언제나 이루어지며, 또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땅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이루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제거될 것, 특히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들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욕구와 행동에 보다 더 충실히 따르는 자유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완전히 구출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맡깁니다 (신 119:34-36; 103:20,22; 눅 22;42; 롬 12:2).

질문 130.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넷째 간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세적 복과 아울러 영적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날마다 간구하라고 명령하시며,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슬기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모든 인간과 함께, 모든 관대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그의 신적이시며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길러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잠 30:8; 시 90:17; 시 55:22; 시 72:4; 시 104;27-28).

질문 131.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간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입었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자비를 가지고 남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특히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자비로 대하는 은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늘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일과 어떤 잘못에 대해서 복수하는 일을 즐기지 않기 위해서 간구하는 반면에, 우리가 온갖 잔혹한 일을 당해도 비통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겨내며, 선으로 악을 극복할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죄로 같이 엮어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마 18:33; 마 6:14-15; 시 51;10; 요일 2:1-2).

질문 132.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는 마지막 간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극악한 충동과, 세상에 있는 모든 외적인 파괴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보이는 처지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이 때때로 아무리 황량하게 보이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낙망보다는 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사랑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출하셨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지금은 실패라고 보이는 모든 것을 마침내는 삼켜버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고후 4:8; 입 3:19; 마 26:41).

질문 133.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마지막 송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모든 원수들보다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연약성 속에서 그의 권세가 완성되었음을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또한 그의 영광은 지금과 또 영원토록 우리의 안녕과 모든 피조물의 안녕을 포함하는 영광임을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계 5:12; 계 4:11; 대상 29:11, 13).

질문 134.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의 불변하는 사랑과 자비가 영원히 존속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완전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계 22:20; 고후 1:20; 딤후 2:13).

* 위에 사용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가 공동번역하여 2004 년도에 발표한 것임.

- 한국어 교리문답 번역위원회 제공
- 위원장: 손대권
- 위　원: 김득렬, 박창환, 최훈진, 한희자, 황혜진 (가나다 순)